

추천 산책 스포트

테라마치 산책 코스

추천 산책 스포트

박물관 순회 코스

1 시모고인덴 바시(트레인 박물관)

이 다리 중간쯤에 '트레인 박물관'이라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마노테선 및 게이세이선 등 14개 선로 위를 신칸센, 특급열차가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2-58

2 혼교우지 절

혼교우지 절은 에도시대(17~19세기)로부터 '달구경의 절'이라고 불려 풍류인들에게 선호받았습니다.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하이카이(俳諧) 시인인 에바야시 잇사등의 시비(詩碑)가 있습니다. 또한 에도시대에 활약한 유학자인 이치카와 간사이등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1-13

3 교오우지 절

교오우지 절은 1868년의 우에노 전쟁에 패한 쇼기타이(彰義隊)의 무사가 여기에 몸을 숨김으로써 신정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산문에 그 당시의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2-6

4 후지미자카 언덕

도심에 몇군데 있는 후지미자카 가운데, 최근까지 지상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고개였습니다. 2004년에는 '간토 후지미 100경'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7-근처

5 조우코우지 절

조우코우지 절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는 만큼 시아가 열려 있어 눈구경에 제격이라 '눈구경의 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에도 로쿠지조 중 하나인 1691년에 개인공양을 받은 동조지장보살입상이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4-3

6 수와 신사

수와 신사는 다케미나카타노미코토 (일본 신화 중에서 전해지는 신)를 모시는 신사로 나가노현에 있는 스와 대사의 분사(分社)입니다. 1205년에 창건되었으며 닛포리·야나카 지역을 지키는 신으로 널리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받고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4-8

7 니시닛포리 공원

니시닛포리 공원은 거리의 소란함을 잊게 해 주는 조용한 공원입니다. 근처의 높은 언덕 위는 조망이 좋아 예부터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5-5

8 세이운지 절

세이운지 절은 에도시대(17~19세기)로부터 슈세인사와 함께 꽃놀이 사찰이라고 불리며 야나카 칠복신 중 하나인 에비스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분당 옆에는 소설 《난소사토미하켄덴》을 지은 작가, 다카자와 바킨의 후테츠카(붓 무덤)와 스즈리츠카(벼루 무덤)가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6-4

9 슈쇼우인 절

슈쇼우인 절은 예부터 세이운지와 함께 '꽃놀이의 절'이라 불려 화가인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명소에도백경 중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에도(도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야나카 칠복신 중 하나인 후테이손이 안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많은 참배자들로 성황을 이룹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3-7-12

10 유우야케단단과 야나카 긴자

아름다운 저녁놀을 바라볼 수 있는 계단 유우야케단단'은 일본 공모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 가면 레트로한 분위기의 야나카긴자 상가가 있어, 시타마치의 활기와 인정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도쿄예술대학생들이 제작한 고양이의 오브제 7개(목조 조각)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줍니다.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 3초메~다이토구 야나카3초메 근처

11 오카쿠라 덴신 기념공원

일본 근대미술의 선구자인 오카쿠라 덴신의 저택터가 현재 오카쿠라 덴신 기념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내의 옥각당에는 히라구시 덴츄가 만든 천심좌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이토구 야나카5-7-10

12 다이엔지 절

카사모리나리 신은 에도 중기부터 모셔져 있는데, 천연두와 피부병을 치유해 주는 신사로 알려져 있어 많은 참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에도의 3대 미인으로 꼽히는 찻집 "가키야"의 간판 여성인 오센과 그녀를 그린 우키요에의 스승 스즈키 하루노부의 비석이 경내에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야나카 국화 축제'가 열립니다.

■다이토구 야나카3-1-2

13 젠쇼우안 절

야마오카 텃슈가 건립한 절로 만담가인 산유테이 엔초의 묘소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엔초를 그리워하는 "야나카 엔초 축제"가 열리며 만담 공연과 함께 마루야마 오요등의 유령화(幽霊畫)도 공개됩니다.

■다이토구 야나카5-4-7

14 산사키자카 언덕

이 비탈 이름은 고마고메와 다바타, 야나카의 세 언덕 이름에 유래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개 흔들기 비탈"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일찌기 근처에 사는 승려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 비탈을 걸음으로써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다이토구 야나카2초메와 3초메 사이로부터 야나카 4초메와 5초메 사이

15 간온지의 초이지 담

에도시대에 축조된 토담입니다. 진흙과 기와를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서 만든 토담 위에 기와를 인 bogi 드문 담입니다.

■다이토구 야나카5-8-28

16 고텐자카 언덕

이전에는 야나카의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급한 비탈을 '고텐자카 언덕'이라고 불렀는데, 닛포리역이나 JR 노선이 생기고 나서 비탈의 대부분이 소멸하게 되어 비탈 윗부분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 이 길 끝에 고인덴(간에이사 린노지노미야의 은소)이 있었던 곳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JR 닛포리역 북쪽출구에서 닛포리역 3초메와 야나카7초메 사이

1 젠쇼우지 절

젠쇼우지 절은 도쿠가와가문의 여섯 번째 장군의 생모가 매장된 이후로 막부와 인연을 갖게 된 절입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6세기 후반)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조각상과 명물 요코즈나인 후타바야마 등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히가시닛포리5-41-14

2 덴노우지 절

덴노우지 절은 가마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여 에도 중에서도 유수한 고찰입니다. 에도시대에는 복권의 기원인 '도미초키'가 흥행하여 에도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이토구 야나카7-14-8

3 다이묘 시계 박물관

에도시대의 다이묘가 실제로 사용한 망루 시계 및 받침대 시계, 배개 시계 등 일본식 시계를 전시하는 일본에서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다이묘가 직접 고용한 시계사들의 고도한 설계 공작 기술을 자세히 견학할 수 있습니다.

■다이토구 야나카2-1-27

4 미우라자카 언덕

미우라시마노카미의 교외 별장 앞에서 네즈 방면으로 내려가는 비탈이었으므로 "미우라 자카"라고 불렸습니다.

■다이토구 야나카1초메와 2초메 사이

5 시타마치 뮤지엄 부설 전시장(구 요시타 술집)

메이지시대의 주점 건물을 이축한 전시장입니다. 관내에는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된 저울과 술을 넣어 둔 나무통, 되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이토구의 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이토구 우에노사쿠라기2-10-6
개관 시간/9:30~16:30 (입관은 16시까지)
휴관일/월요일, 연말 연시

6 조메이인 절

간본 6 (1666)년에 건립된 이 사원에는 2만여개의 석조지장이 즐비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에는 '헤치마 공양'이 이루어집니다.

■다이토구 우에노사쿠라기2-6-4

닛포리·야나카 주변의 연간 이벤트 정보

1월 1~10일	야나카 칠복신 참배
5월 둘째 주 토·일요일	모토미시마신사 예대제
8월 1~31일	야나카 엔초축제(젠쇼우안 절)
8월 마지막 주 토·일요일	스와신사 예대제
9월 초순~10월 초순(음력 8월 15일)	수세미 공양(조메이인 절)
10월 초순	야나카 축제
	야나카 국화축제(다이엔지 절)
10월 초순~중순	예공전
11월 중순	닛포리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7 네기시 산페이도

"쇼와와 바쿠쇼우" (쇼와의 폭소왕)로 불리웠던 라쿠고가 초대 아시아 산페이 기념관으로, 당시의 추억을 담은 물건들이 다량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이토구 네기시2-10-12

8 서도박물관

서양화가 겸 서가였던 나카무라 후세츠가 수집한 중국 및 일본의 서예에 관한 고미술품과 고출토품,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이토구 네기시2-10-4
개관 시간/9:30~16:30(입장은 16:00까지)
입장료/일반 500엔, 초등·중·고등학생 250엔
휴관일/월요일, 연말 연시, 전시교체기간 등

9 시키안

말년의 마사오카 시키가 고향인 마츠야마로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을 불러들여 병실 겸 서재와 하이쿠 및 단가의 모임 장소로서 많은 친구와 문학생들에게 의지하면서 하이쿠 및 단가의 혁신에 생명을 불태운 집입니다.

■다이토구 네기시2-5-11

10 닛포리미나미 공원

닛포리 미나미공원에는 나라에서 표창받은 큰 분수 광장이 있습니다. 원내에는 상록수와 계절마다 피는 꽃풀이 풍성하여 봄에는 많은 벚꽃이 필니다.

■아라카와구 히가시닛포리5-19-1

11 유야케코야케의 기념비(다이닛포리 초등학교)

예부터 계속 불려온 동요 '유야케코야케(저녁놀)'는 작사자인 나카무라 우코가 여기 다이닛포리 초등학교에 신임 교사로 부임하다가 그 다음 해에 다이산닛포리 초등학교로 이동한 후인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라카와구 히가시닛포리5-2-1

12 닛포리 섬유거리

양쪽 약 1km에 걸쳐서 직물 가게가 나란히 서는 전문점 거리입니다. 닛포리 섬유거리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후쿠토 닛포리에서 닛포리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라카와구 히가시닛포리 3~6초메 근처

닛포리의 유래

닛포리는 일찌기 '히구라시노사토(해가 질 때까지 있어도 질리지 않는 마을이라는 뜻)'이라 불려 에도시대(17~19세기)에는 문인들에게 선호받는 경치가 맑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닛포리에 있는 후지미자카는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우키요에의 모티브가 되는 등, 많은 우키요에 및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옷감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줄서 '닛포리 섬유거리'가 있습니다.

야나카의 유래

야나카라는 지명은 에도시대로부터 있었으며 그 당시의 우에노다이와 혼고다이의 골짜기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시타야라는 지명과 대조시켜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간에이사 창건에 수반되는 사원 건립과 에도막부의 정책으로 인해 간다 부근으로부터 많은 사원이 옮겨지면서 테라마치가 형성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지진 재해와 전쟁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으므로 지금도 옛날같은 거리풍경과 건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